한국 문화 100 선 한불 읽기 교재

조혜영

Sciences Po, Université Paris 13; 한국 문화원

들어가기

2016 년 10 월에 파리 한국 문화원 한국어 강사 셋이 공동저로 쓴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100 선 (La culture coréenne en 100 mots)'이 한국의 교재 전문 출판사인 다락원에서 출간됐다. 부제는 'Manuel de lecture bilingue à l'usage des apprenants français' (프랑스 학습자를 위한 이중언어 읽기 교재)이다. 이 책은 그 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전시되었고 다음 해에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100 선' 이란 제목으로 영어와 독어로도 번역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다시 전시 되었다. 부제가 말해 주듯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이 책은 무엇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읽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이 글은 한국 문화 읽기 교재를 쓰게 된 동기, 선별된 100 개 주제 소개, 교재의 구성을 밝히고, 한국 문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어 핵심 어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맺으려고 한다.

1. 동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로 먼저 파리 한국문화원 한국어 수강생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450 명 정원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모두 14 반이며 4 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유럽 언어 능력 기준 (CECRL)에 따르면, A 1 이 7 반, A2 가 4 반, B1 이 2 반, B2 가 1 반이다. 수업은 오후 4 시부터 저녁 9 시 반까지로 일주일에 한 시간 반 수업을 두 번 듣는다. 수강생의 연령은 80 세까지 다양하고 직업도 기자, 교수, 전직 외교관, 영화 감독, 요리사 등 아주 다양하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입양인과 한국인 아내, 남편, 친구, 며느리, 사위, 손주 등 인간 관계와 한국 문화 드라마, K-pop, 한국 영화, 음식, 태권도 등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문화원 한국어 수강생들의 공통점은 한국 문화에 대한 큰 관심이다. 이들은 종종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싶다면서 자신들이 읽을만한 한국어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초급 중급 수준의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적당한 한국어 책을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 동화, 소설, 수필, 시, 만화 등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뿐만 아니라 어휘나 표현도 너무 어렵거나 현대 감각에 안 맞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담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나 어휘는 극히 적은 편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역사, 지리, 종교 등 문화에 대해

한국어로 말하고 싶어도 정보나 어휘 부족으로 표현할 수 없음을 종종 경험한다. 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어휘는 드라마, K-pop, 김치, 떡볶이, 태권도 등 극히 제한 돼 있다. 지리명도 서울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리 한국 문화원의 성인 수강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우거나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현재나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 문화를 알고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파리 한국문화원에는 한국 역사나 문화 수업이 따로 없다. 일주일 세 시간에 주어진 교재를 끝내야 하므로 문화 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다.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한국 문화나 역사, 지리 등을 소개해야 하는데, '판소리'나 '마루'와 같은 한국어들은 설명해야 한다 .

문화원에서의 이런 경험이 초, 중급 학습자들도 자신들이 배운 문법과 표현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글을 읽을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이루는 어휘들을 익혀서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를 쓰게 된 큰 동기가 됐다.

2. 주제 선정

한국문화원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 문화 읽기 교재 쓰기를 결정한 후, 먼저 문화원 한국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다. 주제는 아주 다양했는데, 그 외에 한국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들을 저자들이 추가해서 총 100 개를 선별했다. 이렇게 선택된 100 개의 주제는 상징물, 의식주, 지리와 관광, 사회와 일상생활, 역사와 종교, 예술과 문화 총 6 장으로 분리 되었다.

100 개의 주제는 다음 차례에서 볼 수 있다.

1 장 상징물에는 '한글', '태극기', '무궁화', '아리랑', '고려청자', '김치', '비빔밥', '태권도', '첨단 과학기술' 등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물을 10 개 골랐다.

2 장 의식주는 주제가 12 개로 '한복'과 대표적 한식으로 '불고기', '한국 술' , '인삼', '젓갈', '김장', '다례' 등을 소개하고 주거로는 '한옥', '온돌', '장독대', '마당', '전통 정원' 등을 통해 한국 건축 양식의 특징과 자연관을 소개했다.

3 장 지리와 관광에서는 '한반도', '극동 아시아 속의 한국', '계절과 날씨', '한강'을 소개한 후 '서울의 고궁',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홍대앞', '강남'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와 '제주도와 한라산', '경주와 경주 남산', '하회 마을', '부여와 백제 유적', '부산과 자갈치 시장', '동해안과 설악산', '다도해와 해상 국립 공원', '보성 차밭'을 소개했다.

4 장 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인구’, ‘성과 이름’, ‘호칭’, ‘숫자’, ‘나이’, ‘결혼식’, ‘교육 및 병역 제도’, ‘대학 입학 시험’ 등 일반 생활과 ‘설날’, ‘추석’ 등 한국의 명절 풍습, ‘노래방’, ‘찜질방’, ‘단풍놀이’, ‘등산’ 등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 그리고 ‘비상시 긴급 전화’를 소개했다.

5 장 역사와 종교에서는 각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인 ‘단군 신화’, ‘원효대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이황’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간략히 보여주고, 현대사로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판문점’과 ‘이산가족’을 소개했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보여 주기 위해 ‘신사임당’을 선택했다. 종교는 한국의 고대 신앙으로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된 ‘고인돌’과 ‘무속 신앙’에 대해 설명했다. 불교 신앙으로 한국 불교 종단의 대표인 ‘선’을 소개하고, 건축 양식으로 한국 ‘절’의 특징과 의미를 설명하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불국사와 석굴암’, ‘팔만 대장경’을 통해 고대와 중세 한국 불교의 발전과 의미를 알려 준 후, 현대 한국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를 소개했다. 한국인의 현대 생활 방식과 윤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교의 특징으로 유교 교육의 산실인 ‘서원’과 예식으로 ‘장례식’, ‘제사’, ‘차례’를 소개했다.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비해 뒤 늦게 들어왔지만, 한국 현대 종교와 정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했다.

6 장 예술과 문화 편에서는 ‘한지’와 유럽 최초로 프랑스인 사범이 협회를 만들고, 2011 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에도 기록된 힌국 전통 무예 ‘택견’을 소개하고, 세계 최초 목판 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세계 최초 금속활자로 인쇄돼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된 ‘직지’ 등을 통해 한국 고대 ‘인쇄술’의 발달을 강조했다. 전통 음악으로 유네스코 무형 유산에 등록된 ‘종묘 제례’와 ‘판소리’를 소개하고 가야금과 거문고등 ‘전통 악기’를 보여 주었다. 또 ‘춘향전’과 ‘시조’를 통해 한국 고전 문학을 소개하고, 서민들의 해학을 보여주는 ‘탈춤’과 ‘한국 풍속화와 민화’를 설명했다. 현대 문화로 ‘부산 국제 영화제’, ‘전주 축제들’, ‘한류’, ‘드라마’, ‘K-pop’ 및 서울의 중요한 극장인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을 소개했다.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고, 저자 세 명의 관심사도 달라서 100 개 주제 선택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보충하면서 한국의 특징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

3. 구성

각 주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에는 주제를 소개하는 사진과 한국어 본문이 실려 있다. 사진은 한국관광공사의 사진을 주로 이용했다. 한국의 불교와 유교에 관심이 많아서 절과 서원 등을 방문하며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 둔 본인의 사진들도 실렸다. 한국어 본문은 문장과

어휘의 난이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세 급으로 나누어 그 정도를 별 개 수로 표시했다. 별 하나는 35 개, 별 둘은 47 개, 별 셋은 18 개로 짜여 있다. 100 개의 본문을 셋이 나누어 썼는데, 한국어 초, 중, 고급에 맞는 문장과 표현으로 쓰는데 시간이 걸렸고, 저자들이 모여 의논하면서 문장을 쉽게 여러 번 고쳐야 했다. 영어 판은 영어권 한국어 수강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문장을 다시 쓰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수준과 관심 분야에 따라 주제를 골라 읽을 수 있다. 왼쪽 하단에는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확인 문제를 두 개 덧붙였다. 답은 부록으로 책 끝에 수록되었다.

설날*

Seollal, jour de l'An

새해의 첫날을 설날이라고 한다. 양력 설날과 음력 설날이 있다. 음력 설날이 양력 설날보다 더 중요해서 삼 일을 쉰다. 이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 설날 아침에는 한복을 입는다. 그리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집안 어른들과 존경하는 어른들께 세배를 한다. 어른에게 세배를 드릴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한다. 선물도 한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준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한 살을 더 먹는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 친지들을 만난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문제 Questions

1 설날 아침 어른들께 하는 인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Comment appelle-t-on le salut révérencieux adressé aux aînés de la famille ainsi qu'aux adultes respectés à l'occasion du Nouvel An ?

2 설날에 무엇을 먹습니까?
Quel mets typique mange-t-on au Nouvel An ?

Le jour de l'An est appelé Seollal. Le Nouvel An du calendrier solaire et le Nouvel An du calendrier lunaire sont différents. Comparé au jour de l'An du calendrier solaire, le Nouvel An du calendrier lunaire est plus important, on se repose donc trois jours. À cette occasion, en général, les familles se réunissent. Le matin de Seollal, on porte un *hanbok*. Une cérémonie en l'honneur des ancêtres est également organisée. On fait la révérence du Nouvel An aux aînés de la famille ainsi qu'aux adultes respectés. Lors de la salutation, on prononce les paroles suivantes : « Recevez beaucoup de bonheur pour cette nouvelle année ». On offre aussi des cadeaux. À l'issue de la révérence, les anciens donnent l'argent du Nouvel An aux enfants. Enfin, la famille mange ensemble une soupe de pâte de riz, le *tteokguk*. Le jour de Seollal, les Coréens « gagnent un an ». On revoit les membres de la famille et les amis proches que l'on n'a pas pu voir depuis longtemps. Ainsi Seollal, avec Chuseok, est la fête traditionnelle la plus importante de Corée.

어휘와 표현 Vocabulaire et expressions

설날 Seollal, jour de l'An
새해 Nouvel An
첫날 premier jour
양력 calendrier solaire
음력 calendrier lunaire
보다 더 plus que
중요하다 être important
쉬다 se reposer
가족 famille
모이다 se rassembler
한복 *hanbok*, costume traditionnel
입다 porter
조상 ancêtre
~께 à qqn. (honorifique)
차례를 지내다 faire la cérémonie pour les ancêtres
집안 aîné de la famille
존경하다 respecter
세배를 하다/드리다 faire la révérence du Nouvel An
복 bonheur, chance, fortune
-V (으)면 si
~에게 à qqn.
세뱃돈 argent reçu après la révérence du Nouvel An
-N와/과 함께 avec N
떡국 *tteokguk*, soupe de pâte de riz
오랫동안 pendant longtemps
-V지 못하다 ne pas pouvoir
친척 famille proche
친지 amis proches
가장 le plus
명절 fête traditionnelle

오른쪽 상단에는 저자들이 번역한 프랑스어 본문과 읽기를 도와 줄 수 있도록 '어휘와 표현'을 실었다. '어휘와 표현'은 한국어와 프랑스어 번역을 넣어서 각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를 습득하게 하고 표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책 끝에는 색인을 넣어 어휘와 표현에 나온 모든 낱말을 찾아 볼 수 있게 했다.

4. 문화 핵심 어휘

문화 핵심 어휘는 단순한 언어적 지칭 구실을 넘어 한국 문화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어로밖에는 표기할 수 없는 이 핵심 어휘들은 이 교재를 쓰게 된 동기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외국에 알려진 한 나라의 어휘는 타국에서 그 나라의 문화적 영향과 역량을 보여 준다. 'Samsung', 'LG', 'Kia', 'Hyundai'가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강의는 1956 년 소르본 대학에 처음 개설됐다. 1795 년에 외교관과 통역관을 위해 창설돼 유럽어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언어를 가르치는 파리 동양어 대학에서는 1959 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국어 교육이 60 년이 되는데, 위의 상업 마크 외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프랑스 대중들 사이에 알려진 한국어는 얼마나 될까 ?

가장 알려진 한국어휘는 '태권도'일 것이다. 프랑스 전역에 900 개 이상의 태권도 클럽이 있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프랑스인들에게도 익숙하다. 약 10 년 전부터 한류의 영향으로 '드라마'와 'K-pop'이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며 한국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어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몇 년 전부터 'Korean barbecue'라는 간판을 붙인 식당을 프랑스에서 어쩌다 보게 된다. 막상 들어가 보면 중국식당으로 고기 구이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 '김치'와 '비빔밥'도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나 한국 식당에 드나드는 극소수의 프랑스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

반면, 일본어 어휘는 프랑스에 꽤 알려져 있다. 일본어 강의는 동양어 대학에서 1864 년에 처음 시작됐으므로 150 년이 넘는데, 이 어휘들은 이제 거의 프랑스어가 되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불교의 한 종파인 '선'은 일본어인 'zen'으로 불린다. 프랑스 전역에는 백 개가 넘는 'zen' 센터가 있는데, 'zen'은 뜻이 확장돼 자기 수양, 초월, 고요한 삶 등 여러 의미를 지니며 광고 문구에도 자주 사용된다. 프랑스 청소년에게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일본 만화는 'manga'로 불린다. 요즘 한국 만화가 알려 지면서 한국 만화를 'manga coré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노래방도 일본어 'karaoké'로 정착이 돼 한국 노래방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karaoké'라고 부르곤 한다. 한복도 'kimono coréen'으로 소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 일본의 전통 무예인 'judo', 'karaté', 'aïkido', 'kendo'는 프랑스인들이 즐겨 배우는 무술로 이대로 일본어로 불린다. 'sumo' 역시 잘 알려져, 프랑스 전 대통령인 잭크 시락이 즐겨 보던 운동이라고 한다. 일본 전통 무예를 배우는 곳은 'dojo'라고 불린다. 음식명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일본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특히 파리에는 일본 식당 거리들이 있을 정도로 일본 음식점이 많은데 'sushi', 'sashimi', 'maki', 'miso'등은 집으로 주문도 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된장찌개를 설명할 때 일종의 'miso soupe'라고 하면서 설명하면 빨리 이해시킬 수 있다. 음료수로 'saké'도 알려져서 소주를 'saké coréen'이라고도 한다.

종이 접기인 'origami' 와 일본 단시인 'haïku'도 일본어로 그대로 불리며 이를 즐기는 모임들이 많고 'haïku' 식으로 프랑스어로 시를 써 출판하는 프랑스 시인 협회도 존재한다. 이 외에 'tatami', 'geisha', 'samurai', 'shogun ' 등도 이대로 불려 프랑스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

반면 중국어 어휘는 프랑스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어는 일본어보다 약 20 년 일찍 1843 년부터 동양어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볼 때, 외국어 교육의 역사와 그 나라 문화의 영향과 소개는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문화 어휘가 프랑스 대중에게 안 알려진 이유로 중국 전통 문화를 억압 했던 과거 중국 공산주의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에 중국 식당이 아주 많은 반면에, 중국어로 알려진 음식이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한 나라의 문화 어휘가 알려지게 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전파 정책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프랑스 대중에게 알려진 중국 어휘로는 전통 무술인 'kung-fu'와 'qi-gong' 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통 문화 부흥과 개방 정책과 더불어 최근에는 풍수지리설을 지칭하는 'feng shui'가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꾸미는 집 장식을 뜻하며 알려지고 있다. '선'불교도 중국어 발음인 'chan'으로 표기하며 '선' 불교의 기원이 중국임을 강조한다. 중국 전통 문화도 중국어 교육의 대단한 열풍과 함께 중국어 어휘로 서서히 전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프랑스에 알려진 한국어 어휘는 몇 개 안 된다. '태권도'라는 어휘가 한국어 교육과는 관계없이 프랑스에 알려지게 된 것처럼, 또 '비빔밥'이나 '김치'가 한국 식당의 발달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 것처럼, 한국어 어휘의 대중화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전파와 정착에 비견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100 선'에 선별된 100 개의 주제 제목 대부분에는 로마자 표기가 덧붙었다. 1 장의 '상징물'로 'hangeul', 'taegeukgi', 'Arirang', 'kimchi', 'bibimbap', 'taekwondo'를 들 수 있다. 2 장 '의식주'에서 'hanbok', 'bulgogi', 'jeotgal', 'darye', 'gimjang', 'jangdokdae', 'hanok', 'ondol', 'madang',이 로마자로 표기 됐다. 3 장 '지리와 관광'에서는 지역 명칭이기 때문에 대부분 명칭 그대로 표기됐다. 4 장 '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Seollal', 'Chuseok', 'noraebang', 'jjimjilbang', 5 장 '역사와 종교'에서는 인물 이름 외에 'seon', 'jeol', 'seowon', 그리고 6 장 '예술과 문화'에서는 'hanji', 'taekkyon', 'jongmyojerye', 'Chunhyang', 'pansori', 'sijo', 'talchum', 'pungsokhwa', 'minhwa', 'hallyu', 'drama', 'K-pop' 이 로마자로 표기됐다.

한국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 어휘들은 한국어 교육과 함께 배워야 될 기본 핵심 어휘들이라고 여겨진다. 대중 문화인 '드라마'와 'K-pop'으로 시작한 한류 열풍이 전통 문화로까지 확산되기를 바란다.

맺음말

한국어 어휘의 대중화는 한국어 교육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어 교육이 일상적인 담회법 습득이나 의사 소통 교육에만 주력한다면, 한국어를 잘 하더라도 한국 문화 어휘는 부족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어를 2, 3 년 배우고 한국에서 1 년 동안 살고 온 학생들조차도 한국 문화

어휘는 극히 제한된 경우를 자주 본다. 현재 보통 초, 중급 한국어 교재들 속에 소개된 문화를 봐도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따로 영어로 소개 되고 있다. 프랑스에 출판된 교재의 경우에도 문화는 프랑스어로 별도로 소개 하고 있다. 한국어 고급 교재에는 가끔 문화를 소제로한 대화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읽기를 통해 다루어진다.

최근 외국어 교육의 목표로 의사 소통의 시대를 지나 문화 상호 이해를 중요시 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재에 한국 문화를 소제로 한 대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 어휘와 그 적용 배경이나 상황을 몰라 사용을 못한다면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대중들 사이에 한국의 고유 문화가 알려지고 어휘가 통용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는 바로 그 나라의 어휘를 통해 알려지기 때문이다.

일상적 담화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문화를 대화 속에 다룬 다양한 한국어 교재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